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26.(월) 15:00 < 9.27.(화) 조간 >	배포 일시	2022. 9. 25.(일)
담당 부서 <총괄>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규성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박은표 (044-203-5121)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우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김효선 (044-203-4212)

산업부 장관, 겨울철 앞두고 에너지 위기 극복에 산업계 동참 호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확대, 노사협력 강화 및 산업대전환 등도 함께 논의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9.26.(월)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9.26.(월) 15:00~16:00 /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
- **참석자** : 이창양 산업부장관(주재), 대한상의 부회장, 10대 그룹 사장단(별첨)
- **안건** :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 및 산업계 주요 현안

□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국제 에너지가격('21.1Q→'22.8월) : LNG 5.5배(10→55$/MMBtu), 유연탄 4.7배(89→419$/톤)

** '22.1~8월 무역적자 247.3억불, 원유·가스·석탄 수입금액 1,251.6억불

○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22년 상반기 기준, 한전 적자 14.3조원, 가스공사 미수금 5.1조원

□ 금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최근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 일본 8월 무역적자 : 196억불 / '23년 獨경제 전망 : Info △0.3%, KEWE △0.7%

-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절약) 공공건물 난방제한, 수영장 등 온수사용 금지, 관광명소 조명소등 등
(요금) 전기요금 상승율('21.1월→'22.6) : (英) +68%, (日) +36%, (獨) +22%, (美) +22%
(재정)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 우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운영 중('22.9.1일 1차 회의 개최)

- 이와 함께,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특히, “금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이장관은 우리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며, 투자는 **❶빠른 경기회복**, **❷일자리창출**, **❸신기술 습득**, **❹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하며,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임을 밝히고,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 아울러 이 장관은 금번 **訪美 수행의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며,

○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 끝으로 이 장관은 당면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하여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민관 대응 전략 논의

○ 최근 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 · 장소

○ ’22.9.26(월)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대한상의, 10대 그룹(삼성, SK, 현대, LG, 롯데, POSCO,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 논의 안건

○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

□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05’)	· **참석자 기념 촬영**	장관, 기업대표
15:05~15:10	(05’)	· **장관 모두 발언**	기자단 공개
15:10~15:25	(15’)	· **안건 발표** -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	에너지정책관
15:25~15:55	(30’)	· **토의**	참석자 전원
15:55~16:00	(05’)	· **마무리 발언**	장관

참고2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기업	삼성전자	사장	이인용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이형희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LG	사장	하범종
	롯데케미칼	사장	황진구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전중선
	한화솔루션	사장	박승덕
	GS칼텍스	사장	김형국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가삼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임영록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우태희